

共주관 구성 읽기 교육 방향 탐색

김도남*

〈차 례〉

- I. 서언
- II. 共주관의 특성
- III. 共주관 구성 읽기 교육의 접근 방향
- IV. 결언

I. 서언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방법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읽기 교육은 특정 방식을 중심으로 읽기 주체를 교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은 텍스트 중심의 수용적 읽기 주체나 독자 중심의 구성적 읽기 주체를 강조하였다¹⁾. 현재는 독자의 주관적 관념 구성²⁾ 방법을 강조하는 읽기 교육을 하고 있다. 주관적 관념 구성은 읽기 주체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관념 구성 방식이다³⁾.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의 개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donamsi@hanmail.net

- 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활동은 원리학습과 적용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리학습은 주로 읽기 전략의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적용학습에서는 익힌 전략을 실제 적용하여 활용 방법을 숙달하여 읽는 능력을 기르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의 읽기 능력은 주로 독자의 자기중심적 의미 구성 능력이다.
- 2) 관념은 읽기 주체의 견해, 의견, 관점, 생각 등이다. 주관은 읽기 주체와 관념의 결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읽기 주체가 자기중심적으로 구성한 관념이 주관이다(김도남, 2006a:193).

별성은 배경지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배경지식이 독자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주관의 개별성은 다른 주관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주관의 차이는 주관들 간의 분별성과 상이성(특이성, 독특성)이 바탕을 이룬다. 분별성과 상이성은 주관간의 분리와 고립을 전제한다. 이는 주관들이 상보적 관계이기보다는 대립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관의 개별성은 읽기 주체 간의 관념 소통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독자 중심 읽기 교육의 문제점이다.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방식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텍스트 중심 관념 구성, 독자 중심 관념 구성,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관념 구성, 문화 중심 관념 구성으로 구분하거나(김도남, 2002), 행동주의적 관념 구성과 인지적 관념 구성(박수자, 2001), 구조적 관념 구성과 구성적 관념 구성(신헌재 외, 2005), 단일 텍스트 중심 관념 구성과 다중 텍스트 중심 관념 구성(김도남, 2005), 인지적 관념 구성과 정의적 관념 구성(이삼형 외, 2000), 개별적 관념 구성과 공동체적 관념 구성(김도남 2006b) 등의 구분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해석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읽기 주체의 공동체적 관념 구성 방식에 대하여 논의한다⁴⁾. 해석공동체는 독자들이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구성한 조직체이다. 이 해석공동체 구성원인 독자를 교육하기 위한 접근 방향을 탐색한다. 해석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읽기 주체는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관념을 구성한다.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읽기 주체의 자격 조건은 타 읽기 주체와 관념 연대를 이루는 것이다⁵⁾. 관

3) 독자의 인지적 과정을 강조하는 읽기 교육 방법이다. 인지적 읽기 교육은 스키마와 전략을 강조한다. 스키마는 독자의 개별적 특성을 드러내며, 전략은 사고의 일반적 문제 해결 특성을 반영한다(한철우 외, 2001).

4) 읽기 교육 관점에서 해석공동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는 김도남(2006b)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논의는 김도남(2006b)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교육의 접근 방향을 탐구한다.

5) 관념 연대는 읽기 주체들이 타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관념 내 용을 공유하게 되어 타 읽기 주체의 관념에 대하여 책임감(소유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06b:300~301)을 참조할 수 있다.

념 연대는 해석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념 소통을 통한 관념 공유로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의 관념 소통은 서로의 관념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된다. 읽기 주체가 해석공동체 내에서 타 읽기 주체와의 관념 소통과 관념 연대를 통하여 구성한 주관이 공주관이다.

공주관은 읽기 주체들이 구성한 ⁶⁾공관념⁶⁾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공관념은 공동 관념과 공유 관념, 그리고 개별 관념으로 이루어진다⁷⁾. 공동 관념은 해석공동체 구성원(읽기 주체)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관념이다. 공유 관념은 읽기 주체들이 소통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성한 관념이다. 개별 관념은 다른 읽기 주체의 관념과 구별되는 관념이다(김도남, 2006). 이 공관념은 읽기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구성된다⁸⁾. 이 공관념이 읽기 주체와 결합된 형태를 이룬 것이 공주관이다. 공주관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읽기 주체들의 공관념에 대한 연대의식과 관념의 타당성 확보를 추구한다.

읽기 교육은 학습자의 공주관 구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읽기 교육이 추구하는 한 가지 방향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관념 구성이기 때문이다. 읽기 교육에서 지도해야 할 관념 구성 방식은 다양하다. 읽기 교육에서는 이 관념 구성의 다양한 방식을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념 구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은 독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주관 구성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획일화된 읽기 교육에서는 독자들이 여러 주관 구성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읽기 교육에서는 관념 구성 방식의 다양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고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읽기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6) 공관념은 해석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읽기 주체들이 함께 관념을 구성하고, 그 관념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공관념은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7) 공동 관념, 공유 관념, 개별 관념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06b:282~287)을 참조할 수 있다.

8) 읽기 주체가 단독으로 구성한 주관은 소통 없이 구성되었기에 소통이 어렵고, 상호주관은 소통을 통하여 구성되었기에 소통은 가능하지만 의식적 연대감이 부족하다. 공주관은 의식적 연대를 토대로 한 소통을 통해 구성한 관념이다.

있다. 그러한 면에서 共주관 구성 방법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II. 共주관의 특성

1. 共주관의 개념

읽기는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행위이다. 읽기 주체는 읽기 행위의 주관자이고, 관념은 읽기 주체의 읽기 행위 결과이다. 읽기 주체는 관념의 구성을 통하여 존재적 의미를 갖는다. 즉, 읽기 주체는 관념 구성을 통하여 읽기 주체로서 드러나게 된다. 관념은 읽기 주체가 읽기 행위를 통하여 구성한 일련의 체계화된 생각의 내용이다. 이들 읽기 주체와 관념은 분리된 두 대상이기보다는 결합된 하나이다. 읽기 주체는 관념을 위하여 존재하고, 관념은 읽기 주체에 의하여 드러난다. 이들 읽기 주체와 관념의 결합을 '주관'이라 한다. 주관은 읽기 주체와 관념이 응결되어 드러나는 하나의 작용이다. 이 주관은 읽기 주체가 관념을 구성하는 방식과 구성된 관념의 특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주관의 형태는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방법과 관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관의 종류를 주관, 상호주관, 共주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 '주관'은 읽기 주체가 중심이 되어 단독으로 구성한 '자족 관념'에 기초한다. 이는 독자 중심 읽기 관점에서 비롯되었다¹⁰⁾. 상호주관은 읽기 주체가 타 읽기 주체와 대화나 토의를 통하여 구성한 관념에 기초한

9) 이 밖에는 주관의 종류로 空주관, 습주관, 中주관, 無주관 등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空주관은 불교 철학의 한 갈래인 용수의 空사상에 기초하여 논의할 수 있고, 습주관은 변증법적 논리학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中주관은 증자의 中庸사상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고, 無주관은 노자와 장자의 無爲사상을 중심으로 논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10) 주관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05)을 참조할 수 있다.

주관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읽기 관점에서 비롯되었다¹¹⁾. 공주관은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읽기 주체가 구성한 주관이다. 이는 해석공동체 내에서 읽기 주체 간의 관념 소통을 통하여 구성한 관념에 기초한다¹²⁾. 상호주관과 공주관의 관념은 '이타 관념'이다¹³⁾. 공주관은 해석공동체 내에서 구성된 주관이다. 해석공동체는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원들은 관념 연대를 통하여 유대감을 지닌다. 해석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서로 공유 가능하면서 개별적 특성을 갖는 관념을 바탕으로 읽기 주체가 구성한 주관이 공주관이다(김도남, 2006).

공주관은 읽기 주체와 관념이 '상호 우위'의 관계를 형성한다. 공주관에서는 읽기 주체와 관념이 서로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 주관은 '읽기 주체 우위'의 관계를 이룬다. 읽기 주체가 중심이 되어 관념을 주도적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주관은 읽기 주체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 관념이 된다. 반면, 상호주관은 '관념 우위'의 관계를 이룬다. 상호주관 구성에서 읽기 주체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의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상호주관은 읽기 주체들이 관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타 읽기 주체와 관념을 중간에 두고 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서 관념이 우위의 관계를 이룬다. 공주관 구성에서 읽기 주체들은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공유 관념과 개별 관념을 종합하여, 확장되고 정교화된 공관념을 구성한다. 이는 읽기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바탕이 되지만 읽기 주체는 타 읽기 주체와 관념 구성을 위하여 소통을 하고, 관념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공주관 구성 과정과 구성 결과에서 읽기 주체와 관념이 함께 강조된다. 즉, '상호 우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공관념은 읽기 주체들의 생각 줄기¹⁴⁾가 얹혀서 구성된다. 공관념 구

11) 상호주관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06a)을 참조할 수 있다.

12) 공주관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06b)을 참조할 수 있다.

13) 상호주관과 공주관이 이타적(利他的)인 것은 이들 주관 구성 과정에서 읽기 주체는 타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 가능한 관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4) 생각 줄기는 생각의 단초를 말한다. 줄기는 씨앗이 가진 배(胚)의 어린 싹이 가지와

성에서 읽기 주체는 미시 해석공동체 및 거시 해석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한다¹⁵⁾. 읽기 주체들은 관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해석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점검하고 보충하며 확인한다. 그러면서 읽기 주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생각 줄기들을 교환한다. 그 후 교환한 생각 줄기들을 선택하고 연결하여 관념을 확장하고, 이를 정교화하여 **서관념**을 구성한다. **서관념**은 해석공동체와 읽기 주체들의 생각 줄기들이 연결되고 얹혀서 이루어진다.

서관념 구성에서 읽기 주체들은 관념을 ‘공유’하면서도 ‘구분’한다. 관념의 ‘공유’는 읽기 주체가 서로 **서관념**의 구성에 개입함을 의미한다. 이는 읽기 주체의 관념이 해석공동체 내에서 타 읽기 주체의 관념과 연결됨을 뜻한다.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에 기초하여 읽기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 구성에 참여하고, 서로의 관념을 연결한다. 관념 공유는 읽기 주체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생각 줄기를 제공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읽기 주체들이 생각 줄기를 주고받는 관념 소통을 통하여 구성한 관념이 공유 관념이다. 관념의 ‘구분’은 읽기 주체들이 구성한 관념의 차이점을 뜻한다. 해석공동체 내에서 구성한 관념이라도 읽기 주체들은 서로 차이는 관념을 구성한다. 읽기 주체의 **서관념**이 다른 읽기 주체의 **서관념**과 구분되는 것은 **서관념** 구성에 읽기 주체만의 생각 줄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가 가진 고유한 생각 줄기는 **서관념** 속의 개별 관념의 부분이다. 이 개별 관념이 **서관념**을 서로 구분하게 만든다.

서관념은 관념의 변화이다.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이 타 읽기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되어 **서관념**이 된다. **서관념**은 읽기 주체의 자기중심적 ‘자족 관념’이 타 읽기 주체와 공유한 ‘이타 관념’으로 변한 것

뿌리로 자라난 것이다. 생각 줄기는 생각의 단초가 발달한 것이나 완결된 생각은 아니다. 다만 완결될 가능성을 가진 생각의 실마리이다. 읽기 주체가 구성할 관념의 단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의 맹아(萌芽)이다.

15) 미시 해석공동체와 거시 해석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도남(2006b)을 참조할 수 있다.

이다. 여기서 자족 관념은 일차적 관념이고, 주관을 구성한다. 이 일차적 관념은 읽기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 읽기 주체들에게 제시된다. 타 읽기 주체들은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제시된 관념에 대하여 점검하고, 옹호하거나 비판한다. 그러면서 관념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읽기 주체는 타 읽기 주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념을 새롭게 조율한다. 읽기 주체가 새롭게 조율한 관념이 이차적 관념이다. 이 이차적 관념이 공관념이고, 공주관을 구성한다. 관념에서 공관념으로의 변화는 일회적이기보다는 반복적이다. 읽기 주체가 새로운 읽기 주체를 만나 관념을 소통할 때마다 관념은 새롭게 변하여 공관념이 된다.

공관념과 읽기 주체의 결합체인 공주관은 주관과 주관이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주관과 주관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 범주를 넘나들었다. 읽기 주체가 대표하고 있는 관념의 범주가 타 주체의 관념의 범주와 겹치는 것이다. 관념 범주의 겹침은 관념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차이나는 부분이 적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자면 한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특정한 같은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적게 갖는다. 조금 확대하면, 한 문화 속에 속한 개인들은 같은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차이나는 문화적 요소는 적게 갖는다. 그렇지만 같은 학파나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이라도 개별적으로는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관념의 세계에서는 서로 넘나들 수 있다. 이것이 주관과 주관이 함께 한다는 의미 즉, 공주관이다.

2. 공주관의 구성 방식

읽기 주체는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자족 관념을 구성한다. 이 자족 관념은 타 읽기 주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이타 관념으로 발전한다. 이타 관념은 읽기 주체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반이다. 읽기 주체는 관념 소통을 통하여 타 읽기 주체와 관념을 공유한다. 관념 공유는 읽기 주체들

이 관념에 대한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읽기 주체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이렇게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가지고 구성한 주관이 **공주관**이다. 이것은 해석공동체의 바탕 위에서 구성된 주관이다. **공주관**은 읽기 주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구성한 관념에 기초한 주관인 것이다. **공주관**은 해석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읽기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구성된다. 읽기 주체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다.

공주관은 읽기 주체가 선택한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읽기 주체가 관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새롭게 관점을 만든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 관점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읽기 주체는 선험적 읽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관점을 선택하거나 만들어야 한다¹⁶⁾. 일반적으로 읽기 주체는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른 독자에게서 빌린다. **공주관**을 구성하는 읽기 주체는 특정 해석공동체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해석공동체는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에 필요한 공동 관념과 읽기 전략을 제공한다. 공동 관념은 해석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 관념이다. 읽기 주체가 관념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생각 줄기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심청전'을 '효'의 관점에서 읽는다. 이것은 우리가 효를 바탕으로 '심청전'을 바라보는 해석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청전'에 대한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심청전'을 '효'라는 공동 관념에 입각하여 관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¹⁷⁾.

해석공동체는 읽기 주체에게 읽기 전략(또는 해석 전략)도 제공한다. 읽기 전략은 읽기 주체가 관념 구성에 필요한 생각 줄기를 선택하고, 연결하는 의도와 행위의 절차이다. 읽기 전략은 읽기를 보는 관점에서 비

16) 읽기 주체가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관념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해석공동체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 논의에서는 새로운 해석공동체의 구성보다는 **공주관**의 구성에 초점이 놓여 있으므로 해석 관점의 선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7) '심청전'에 대하여 다른 해석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권 보호'라는 공동 관념에 기초한 해석공동체는 기존의 해석공동체와 다른 해석공동체가 되어 '심청전'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롯된다¹⁸⁾. 읽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읽는 의도와 절차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자 중심 읽기는 독자의 필요에 맞는 관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선택하고, 연결한다. 그래서 독자의 필요성에 맞는 관념을 구성한다. '심청전'을 '효'의 관념에서 해석하게 하는 해석공동체도 '심청전'을 읽는 전략을 제공한다. 해석공동체의 의도에 따라 심청의 말과 행동 중에서 효와 관련된 것을 선택하고, 효행의 관점에서 선택한 내용을 연결하고 관념을 구성하게 한다. 읽기 전략은 텍스트의 특정 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읽기 주체가 의식을 집중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념을 구성하게 한다¹⁹⁾.

공주관의 구성은 읽기 주체와 해석공동체 간의 길항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가 해석공동체에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는 해석공동체를 벗어나고 싶어도 하고, 해석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이 두 의식은 항상 함께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읽기 주체는 '심청전'을 읽을 때, 심청의 행동에 대하여 마냥 동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의식이나 상황적인 요인을 활용하거나 읽기 주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심청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읽기 주체는 해석공동체와 대립되는 관념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 때 읽기 주체와 해석공동체의 갈등 조정을 타 읽기 주체들이 한다. 타 읽기 주체들도 읽기 주체와 같은 입장에 있기에 타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주관의共管념은 해석공동체의 생각 줄기인 공동 관념과 읽기 주체와 타 읽기 주체의 생각 줄기가 결합된 공유 관념, 그리고 읽기 주체만의 개별 관념이 결합되어 구성된다. 심청전에 대한 여러 논의²⁰⁾가 존재할

18) 피쉬(Fish, 1980:167~173)는 해석 전략이 해석공동체 구성 조건이라고 말한다. 즉, 읽기 주체의 같은 해석 전략 사용이 해석공동체를 만든다고 말한다. 물론 해석 전략이 해석공동체나 공주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해석 전략만으로는 해석공동체에 기초한 공주관을 설명하기 어렵다.

19) 그렇다고 읽기 주체가 완전히 해석공동체의 읽기 전략에만 의지하지는 않는다. 읽기 주체의 읽기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독자 중심 읽기라고 하여 독자는 독자의 배경 지식만 사용하여 관념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20) 심청전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최운식(1982), 유영대(1989) 등이 있다.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쑤주관은 읽기 주체 간의 관념 소통으로 구성된다. 관념 소통은 읽기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념의 보완이다. 해석공동체의 읽기 주체들은 쑤주관 구성을 위하여 서로의 관념을 상호 점검한다. 관념 구성 조건(공동 관념, 연대의식 등)이나 관념 구성 전략 및 관념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관념에 대한 의견 교환은 직접 또는 간접적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들은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글이나 분위기, 상황맥락으로 의견 교환을 하기도 한다. 의견의 교환은 서로의 관념에 대한 이해와 조율을 통한 관념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한다. 관념 소통은 서로의 관념에 대한 반응이지만 읽기 주체의 관념에 대한 평가이고 보완을 위한 조언이다. 쑤주관을 위한 관념의 보완은 타 읽기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읽기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쑤주관의 완결은 읽기 주체의 의지와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쑤주관의 구성은 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의 발전이다. 관념의 발전은 해석공동체에 안주해서는 이룰 수 없다. 읽기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타당성을 확보할 때 발전할 수 있다. 읽기 주체의 적극성이 반영되지 않은 관념은 쑤주관을 이룰 수 없다. 읽기 주체는 타 읽기 주체가 제공하는 생각 줄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쑤관념을 구성해야 한다. 쑤관념의 구성은 관념의 발전적 변화이다. 쑤관념은 생각 줄기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내용 구조를 갖게 되고, 내용이 포용성을 가져 충실해진다. 이는 관념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족 관념이 이타 관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본적인 관념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읽기 주체간의 관념 소통이 기반 되었기 때문이다. 관념 소통으로 여러 생각 줄기와 결합하여, 쑤관념 구성을 통한 관념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3. 공주관 구성의 기제

공주관 구성은 읽기 주체의 의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의 해석공동체 참여는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는 자족적인 주관 구성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읽기 주체가 공주관 구성을 선택하는 것은 관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읽기 주체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읽기 주체는 자족 관념만으로는 존재적 의미가 적을 수밖에 없다. 타 읽기 주체가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을 구성하게 될 때 존재적 의미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읽기 주체는 해석공동체 내에서 공주관의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주관은 해석공동체 내에서 읽기 주체 간의 관념 소통으로 구성된다. 관념의 소통은 공동 관념을 기반으로 한 공유 관념의 확대와 개별 관념의 인정 활동이다. 공유 관념은 읽기 주체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관념의 부분이고, 개별 관념은 해석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의 부분이다. 읽기 주체는 타 읽기 주체와의 유대를 통해 공유 관념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개별 관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통한다. 관념 소통 과정에서 읽기 주체들은 여러 기제²¹⁾들을 사용한다. 읽기 주체의 공주관 구성 기제는 ‘해석공동체 참여 기제’, ‘읽기 주체 간 소통 기제’, ‘읽기 주체의 쉼관념 구성 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쉼관념 구성에 기여하는 주요 기제를 이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쉼관념 구성에 작용하는 기제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읽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읽기 주체의 행위에 관여하는 내적, 외적 요인들이 모두 기제가 된다. 읽기 주체는 이들 기제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쉼관념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공주관을 구성한다.

‘해석공동체 참여 기제’는 읽기 주체가 해석공동체 내에서 관념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기제이다. 해석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읽기 주체는

21) 기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도구이다. 읽기 기제는 읽기 주체가 관념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심리적 도구이다.

연대의식, 해석 전략, 소통 조건, 소통 맥락 등을 공유해야 한다. '연대의식'은 읽기 주체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이면서 서로의 관념에 대한 책임감이다. 연대의식은 해석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하며 읽기 주체의 의미 구성에도 적극 개입한다. '해석 전략'의 공유는 같은 해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해석의 방법으로 인한 해석의 원리와 절차 및 과정에서 읽기 주체들 간의 동질감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해석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읽기 주체가 해석공동체의 해석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²²⁾. '소통 조건'은 관념을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다. 읽기 주체는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 읽기 주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타 읽기 주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 타협과 수용과 같은 형식적 조건과 소통 내용과 관련된 내용적 조건을 공유해야 한다. 읽기 주체들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다면 소통은 성립될 수 없다. '소통 맥락'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형식적, 의미적 환경이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요구되는 담화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소통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석공동체의 참여 기제는 읽기 주체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이다.

'읽기 주체 간 소통 기제'는 읽기 주체들이 관념을 소통하기 위한 기제이다. 공유관 구성은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유관 구성을 위하여 읽기 주체들은 타 읽기 주체와 소통하고, 연대하게 된다. 읽기 주체가 타 읽기 주체와 연대하는 데 필요한 기제는 관념 제시, 관념 점검, 관념 공유, 관념 연대 등이다. '관념 제시'는 읽기 주체의 관념의 언어화를 통한 외적 표현이다. 읽기 주체는 자기의 생각을 타 읽기 주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언어로 드러내야 한다. 읽기 주체가 관념을 드러내면 타 읽기 주체들은 제시된 관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관념 점검'은 제시된 관념에 대한 타 읽기 주체들의 검

22) 피쉬(Fish, 1980)는 해석공동체 구성 핵심 조건으로 해석 전략을 들었다.

토이다. 관념 검토는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이 해석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관념을 검토하기 위한 타 읽기 주체의 판단의 기준은 해석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 관념이다. 타 읽기 주체들은 읽기 주체가 제시한 관념을 공동 관념에 기초하여 수정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관념 공유’는 읽기 주체들이 제시된 관념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충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간다. 읽기 주체의 관념을 정교화하고, 확장하여 서로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관념 연대’는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에 대하여 타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생각이 얹혀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해석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책임감은 관념의 일부에 대한 권리 의식이기도 하지만 관념을 보완해야 하는 의무감이기도 하다. 읽기 주체들은 이들 기제를 활용하여 공주관을 구성한다.

‘읽기 주체의 공주관 구성 기제’는 읽기 주체가 공주관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기제이다. 공주관은 타 읽기 주체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 구성자는 읽기 주체이다. 읽기 주체는 자신의 관념에 대한 점검과 타 주체와의 상호작용 및 관념의 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읽기 주체의 관념 수정을 통하여 공주관이 완결된다. 읽기 주체가 공주관을 완결 짓기 위하여 관념 문제 확인, 관념 수정 의지, 관념 수정 전략 선택, 관념 수정하기 등의 기제를 사용해야 한다. ‘관념 문제 확인’은 읽기 주체가 자신이 구성한 관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는 구성한 관념이 타당한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첨가하거나 정교화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의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관념에 대한 타 읽기 주체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결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주관의 구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관념 수정 의지’는 관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체의 의지이다. 주체는 문제가 있지만 패념치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

결되지 않는다. 共관념 구성에서 관념 수정 의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성된 관념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관념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주체들이 관념 수정 의지를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관념 수정 의지의 요건으로는 관념의 결여를 지각하고, 관념 보완 의식을 가지며, 타 읽기 주체의 관념 수정 요구를 수용하는 것 등이 있다. ‘관념 수정 전략 선택’은 관념의 문제를 해결하여 완결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제이다. 읽기 주체가 구성된 관념은 미완이거나 정교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미완의 관념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관념 연결하기, 잉여 내용 잘라 내기, 관념 첨가하기, 관념 대체하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읽기 주체는 관념을 완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관념 수정하기’는 관념의 결여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다. 관념 수정은 정교화하기, 확장하기, 재구성하기, 융합하기 등을 할 수 있다. 관념 수정을 통하여 완결된 共관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들 기제들은 읽기 주체가 구성된 관념을 보완하여 共관념을 완결짓기 위한 것이다.

4. 共주관 구성의 지향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은 일정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의 의도에 따라 주관 구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읽기 주체는 지족 관념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타 관념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읽기 주체의 의도에 따라 관념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읽기 주체가 여러 가지 관념의 방식을 알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읽기 주체가 관념 구성 방식을 아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읽기 교육에서 특정 관념 구성 방식만 가르치면 학습자는 그 한 가지 밖에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방식의 관념 구성 방식을 익히고, 이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共주관 구성은 여러 관념 구성 방식 중의 하나이다. 共주관이 추구하는 관념 구성의 지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관 구성은 관념의 질 향상을 전제한 읽기 주체의 협력을 지향한다. 관념의 질은 내용의 깊이와 넓이다. 내용의 깊이는 충실성을 의미하고, 내용의 넓이는 포괄성을 가리킨다. 내용의 충실성은 관념이 포함해야 할 필수 내용을 두루 갖추는 것이다. 이 충실성은 독자의 생각의 깊이 즉, 읽기 주체의 행위의 통찰력과 정밀성, 정확성과 세련성에서 비롯된다. 관념의 포괄성은 필요한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 갖추는 것이다. 이 포괄성은 생각의 크기 즉, 읽기 주체의 행위의 용인성과 수렴성, 확장성과 연계성에서 비롯된다. 관념의 깊이는 과제에 대한 심원하고 능통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넓이는 과제에 대한 원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관념의 깊이는 읽기 주체의 내적 행위의 과제이고, 관념의 넓이는 읽기 주체의 외적 행위의 과제이다. 관념의 깊이와 넓이의 상보적 조합으로 질이 향상된다. 관념의 깊이와 넓이의 상보적 조합은 읽기 주체의 치밀함과 해석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관념의 다양성과 풍부성에서 비롯된다. 공주관이 추구하는 관념의 질 향상은 읽기 주체와 타 주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공주관 구성은 읽기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한 관념의 타당성 확보를 지향한다²³⁾. 관념 소통은 읽기 주체가 서로의 관념을 주고받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관념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관념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의 관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들의 관념 구성 개입은 생각 줄기의 나눔이다. 또한 관념에 대한 평가이면서 수정과 보완이다. 이는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을 깊게 읽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읽기 주체들은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관념에 대한 연대의식을 고취한다. 그러면서 관념의 소통은 관념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관념의 타당성은 타 읽기 주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조리를 세우는 것이다. 관념의 조리는 타 읽기 주체의 도움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으며 관념의 소통으로 확고해 진다. 관념의 소통에

23) 상호주관과 공주관 모두에서 관념의 타당성을 지향한다. 공주관에서 추구하는 타당성은 상호주관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에 기초한 관념의 타당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서 읽기 주체는 대립과 협력을 경험한다.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읽기 주체간의 갈등과 화해가 관념의 타당성을 높인다.

공동관 구성은 관념의 공유를 통한 공유관념의 연대를 지향한다. 관념의 공유는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는 점유한 관념을 대표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점유한 관념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질적으로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다. 소유한 것에 대하여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관념의 공유는 타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에 대한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다. 연대의식은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공유 관념에 대하여 점유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한편 공유는 모든 것을 읽기 주체의 소유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유는 타자의 소유를 인정함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관념 공유는 해석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서로 공유한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에 대하여 타 읽기 주체는 일부분의 관념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관념 공유가 관념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관념을 공유하는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공유하고 있는 관념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함의한다.

III. 공유관 구성 읽기 교육의 접근 방향

읽기 교육에서 공유관의 구성은 그동안 외면당한 면이 있다. 외면당한다는 말은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독자의 텍스트 읽기는 공유관 구성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텍스트 이해는 텍스트와 순수한 독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요인을 끌어들여 관념을 구성한다. 독자의 관념 구성에 있어 외부 요인은 텍스트 요인이거나 독자 요인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텍스트와 독자 중심 읽기 교육을 공유관 구성 관점에서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공주관 구성의 읽기 교육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1. 읽기 교육에 대한 비판

현재의 읽기 교육은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텍스트 요인과 독자 요인,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을 강조한다. 이들 강조 요인을 바탕으로 한 읽기 교육의 문제를 해석공동체 중심 읽기 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 본다. 텍스트나 독자 중심의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의 역할 단면화 문제와 관념 소통의 부재 문제가 있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에서 읽기 주체에 대한 활동을 강조한 면이 있지만 그 역할은 다면적이지 못했다. 특정한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읽기 주체들의 관념 내면화나 구성은 강조하였지만 관념을 타 읽기 주체와 소통하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본다.

1) 읽기 주체 역할의 단면화

독자의 텍스트 이해는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은 단지 텍스트만 분석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인의 인지적 사고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은 텍스트 내용 파악으로 관념을 마련하고, 관념에 대한 타 읽기 주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관념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읽기 주체는 관념의 구성자, 대변자, 분석자, 보완자, 옹호자 등의 개별적 역할과 공동체 내에서 비판자, 수용자, 소통자, 재구성자, 조언자, 반영자, 연대자, 유대자 등의 관계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해석공동체 내에서의 읽기 주체는 단일 역할로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다. 타 읽기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통하여 관념을 구성한다. 관념의 구성은 해석공동체의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관념 구성이 독자의 인지적 문제로만 귀결된다면 읽기 주체는 단면적 역

할로 관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의 구성은 개별 독자의 인지적 문제가 아니다. 읽기 주체는 독자 내외의 여러 요인을 활용하고 조정하는 복합적 활동을 한다.

그동안 읽기 교육에서 보면, 읽기 주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텍스트 내적 요인의 분석²⁴⁾이나 텍스트에 대한 주관적 관념의 구성을 강조했다²⁵⁾. 주관적 관념은 읽기 주체의 인지적 활동만 강조했다. 인지 외적 활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텍스트 중심 읽기 교육에서 읽기 주체는 관념의 '소극적 수용자'였다. 읽기 주체는 단지 텍스트의 내용에 충실하게 주어진 관념을 인식하는 것뿐이다. 독자 중심 읽기 교육에서는 '소극적 구성자'이다. 읽기 주체는 자기중심의 자족 관념을 만들어 낼 뿐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읽기 교육에서는 '중도적 대변자'였을 뿐이다²⁶⁾. 관념에 대한 충분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대화에 참여하여 관념을 제시할 뿐이었다²⁷⁾. 이들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들의 다면적 역할의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텍스트 중심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 주체의 주도적 의미 구성을 용납하지 않았고, 독자 중심 읽기 교육에서는 주체의 관념 구성에 타 읽기 주체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읽기에는 반정초주의(反定礎主義)에 입각한 합의된 관념을 강요했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에게 주어진 단일 역할만 하도록 강요했다. 텍스트 중심 읽기 교육은 구조주의 인식론이나 형식주의 및 신비평 문예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 등에 기초하여 독자의 역할을 텍스트 분석으로 한정하였다. 독자 중심 읽기 교육은 구성주의 인식론과

24) 이에 대해서는 정동화 외(1989)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기초로 한 국어과 교육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25) 이에 대해서는 박수자(2001), 한철우 외(2001) 등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26) 이는 협동 학습(신현제 외, 2003)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활동(김국태, 2006)을 보면 알 수 있다.

27) 읽기 교과서의 적용학습 마지막 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발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해 보는 것 이상의 활동이라 할 수 없다. 단지 다른 학습자의 귀를 빌려 잠시 말하는 활동일 뿐이다.

독자반응비평 및 인지심리학에 기초하여 독자의 역할을 주관적 의미 구성으로 제한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접근도 바흐친의 대화주의나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및 비고츠키의 인지심리학에 기초하여 자기중심적 의견 합의자로 국한하였다. 이들 관점을 수용한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 주체의 특정한 역할만을 요구했다. 읽기 주체는 관념을 수용하고, 관념을 구성하며, 관념을 합의²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렇게 함으로 읽기 주체는 관념 구성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제한받았다. 텍스트 중심 읽기 교육에서 읽기 주체의 개별적 관념 구성은 무시되었고, 독자 중심 읽기 교육에서는 텍스트 관념과 타 읽기 주체의 관념이 무의미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읽기 교육에서는 텍스트의 관념과 읽기 주체의 관념 및 타 읽기 주체의 관념 모두가 주목받지 못했다. 합의된 관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읽기 주체의 역할을 텍스트 관념 수용자로 인식하면 읽기 교육은 텍스트 분석에 한정된다. 읽기 주체를 주도적 관념 구성자로 인식하면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의 인지 활동으로 제한된다. 읽기 주체의 역할을 관념 합의자로 인식하면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들의 협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읽기 주체에 대한 인식이 읽기 교육의 방향과 특성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읽기 주체를 계속 새롭게 규정해 왔다. 텍스트 분석자에서 관념 구성자로, 그리고 관념 합의자로 바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읽기 주체에 대한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읽기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읽기 주체의 역할 단일성은 벗어나지 못했다. 앞으로도 읽기 주체에 대한 규정은 새롭게 변할 것이고, 읽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읽기 주체 역할의 다면성에 대한 인식이다.

28) 관념 합의는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읽기 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관점에서 읽기 주체는 관념을 제시하고 타 읽기 주체와 합의하는 것을 전제한다. 관념 합의는 텍스트의 의미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관념은 집단적 의미 합의에 있어 하나의 고려 대상일 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교육면에서 볼 때, 읽기 주체의 단일 역할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읽기 주체의 역할 단일성을 강조하면 관념의 편향성을 불러온다. 관념의 편향성은 관념이 텍스트나 독자에게로 편중되어 관념의 타당성이 낮아진다. 어떤 방식의 읽기라도 관념의 완전성은 기할 수 없다. 다만,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 주체의 관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관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읽기 주체의 역할을 다면화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관념의 구성자이면서 소통자가 되어, 관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것이다. 해석공동체는 읽기 주체의 다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읽기 주체가 텍스트를 읽어 구성한 관념을 타 읽기 주체와 소통하게 함으로써 관념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읽기 주체에 대한 다면적 역할 규정을 함으로써 독자의 쉼주관 구성을 도울 수 있다.

2) 관념 소통의 부재

관념 소통은 타당한 관념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 그에 대한 의견교환은 당연한 일이다. 읽기 주체는 텍스트를 읽고 관념을 구성하여 타 주체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은 타 읽기 주체와 소통될 때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은 자기중심의 '내밀성'보다는 타자중심의 '공개성'을 가져야 한다. 타 읽기 주체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념이 존재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의 내밀한 관념은 개별 독자에게만 가치가 있다. 소통될 수 없는 관념은 존재 의미도 독자에게로 제한된다. 관념은 공개적으로 구성되고, 소통되어야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읽기 주체는 소통 가능한 관념의 구성과 소통을 통한 관념의 재구성을 해야 한다. 그것은 관념의 내적 질을 향상시키고, 존재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에서는 관념의 소통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관념 소통을 단지 협의나 합의의 일종으로만 본 측면이 있다²⁹⁾. 그래서 관념 소

29) 국어과 읽기 교육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협동학습에 대한 논의(신현재

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읽기 주체의 관념 소통은 관념의 발전을 전제한다. 읽기 주체들은 관념 소통을 통하여 관념 연계성과 관념 연대성 및 관념 융합성을 확보한다. 관념 연계성은 읽기 주체들의 관념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다. 관념의 소통은 읽기 주체들이 관념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념이 얹히게 만든다. 읽기 주체 간의 관념의 얹힘은 관념을 정교화하고, 확장하면서 관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 읽기 주체의 소통을 통한 관념의 얹힘은 각 주체의 관념에 대하여 공동의 연대의식을 만든다.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이 읽기 주체만의 것이 아닌 공동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읽기 주체의 관념에 대하여 다른 주체들도 관심과 책임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관념의 연대성이다. 관념의 융합성은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이 여러 관념의 결합으로 성격이 새롭게 변화했음을 뜻한다. 여러 관념이 단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응결된 것이다. 읽기 주체의 관념이 융합되지 못하면 공주관이 될 수 없다. 관념의 소통은 이러한 관념의 구성을 지향한다.

지금의 읽기 수업의 성격을 몇 가지 들면 학습자 중심, 목표 중심, 과정 중심,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등이 될 것이다³⁰⁾. 이들 수업 특성은 읽기 주체의 관념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읽기 교육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념 구성에 학습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도적 역할은 여러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한 자신만의 관념을 구성하게 한다는 의미

외, 2003)나 비계설정에 대한 논의(김국태, 2001)를 참조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교육적 접근에 대한 실체는 읽기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안내 하는 활동 지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적용학습 활동의 마지막 지시문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지시문은 학습자들은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진정한 생각 나눔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전체 학습활동의 흐름 상 관념을 소통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30) 국어과 수업의 특성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성격면, 교육 목표면, 교육 내용면, 교수 방법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는 신현재 외(2005:12~17)에 제시된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의 지향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를 갖는다. 목표 중심은 목표로 제시된 읽기 기능이나 읽기 전략을 익히는 것에 초점이 있다. 기능과 전략은 수단이다. 관념을 수용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기능과 전략이 관념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목표 중심 읽기 수업에서는 관념 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도 상호작용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관념 소통을 할 수 있지는 않다. 관념 소통은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 구성에 깊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읽기 수업에서는 '내가 구성한 관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학습자들이 서로의 관념 구성에 개입할 수 없다. 만약 서로의 관념 구성에 개입하게 되면 학습자 중심이나 전략 중심 및 목표 중심 읽기 수업의 성격에 위배된다. 따라서 지금을 읽기 수업에서는 관념 소통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 읽기 주체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수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읽기 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은 읽기 전략이다. 이들 읽기 전략은 관념 소통과는 거리가 있다. 읽기 전략은 읽기 주체가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든가 텍스트 내용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독자 중심의 접근 관점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고, 추론하고, 비판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토의하고, 협상하고, 합의한다. 이들은 각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 구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토의나 합의도 모둠이나 학급별로 하나의 통일된 관념을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 모둠이나 학급에서 합의하여 도출된 관념은 읽기 주체들과는 상관이 없다. 소통이 아닌 결정이고 선택일 뿐이다. 읽기 주체들이 잠시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읽기 주체들과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관념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학습자는 별로 없다. 읽기 주체들이 각자의 쉼관념 구성을 위하여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여 융합하지 않는다. 또한 구성된 관념에 대하여 연대의식을 가지지도 않는다. 읽기 주체간의 일방적인 관념 제시는 있지만 각자의 관념 구성을 위한 관념 상호 간의 얽힘이나 섞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읽기 수업에서 나타나는 관념 소통의 문제점이다.

2. 공주관 구성 읽기 교육 방향

공주관은 읽기 주체가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성한 관념이다. 읽기 주체가 공주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자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읽기 주체는 텍스트 내용에 대한 해석자이면서 타 읽기 주체와의 소통자이고, 관념의 융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타 읽기 주체의 관념에 대한 연대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읽기 주체만의 관념 구성을 책임지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읽기 주체의 역할은 관념의 소통에서 비롯된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은 주체의 관념 소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공주관을 위한 읽기 교육의 접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읽기 주체 역할의 다면화

공주관은 읽기 주체의 다면화를 요구한다. 공주관 구성을 위해서 읽기 주체는 단일한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읽기 주체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져야 하고, 각 역할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역할은 개체들이 주어진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다. 각 역할에서 해야 할 활동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성인 남성의 역할은 가장, 남편, 아버지, 직장인, 선배, 후배, 친구, 상사, 모임 임원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역할에 따른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있다. 공주관을 구성하는 읽기 주체는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주관 구성을 위한 읽기 주체의 역할은 ‘관념 구성자, 관념 소통자, 관념 공유자, 관념 연대자, 관념 대표자’ 등을 들 수 있다.

관념 구성자는 읽기 주체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읽기 주체가 읽기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읽기 주체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만의 일차적 관념을 구성한다. 일차적 관념은 읽기 주체의 읽기 의도나 목적에 따라 구성한 관념이다. 읽기 주체만을 위한 단독 관념이다. 읽기

주체의 입장에서 내적인 조리가 선 하나의 생각 구조체인 것이다. 읽기 주체의 단독 관념이기에 읽기 주체만의 자족 관념이다. 이차적 관념은 다른 읽기 주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구성하는 共관념이다. 일차적 관념의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 확대하여 완결성과 타당성을 높인 관념이다. 타 읽기 주체와 소통을 통하여 구성한 공동의 관념이다. 읽기 주체가 관념 구성자로서 이차적 관념을 구성하였을 때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읽기 주체는 이차적 관념인 共관념을 구성하기 위한 관념 구성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관념 소통자는 관념을 보완하기 위한 읽기 주체의 적극적 역할이다. 읽기 주체는 구성 관념을 타 주체와 공유하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념 소통이 필요하다. 관념 소통을 통하여 관념의 타당성을 높이고, 해석공동체 내에서의 읽기 주체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관념 소통은 타 읽기 주체와의 직접 소통과 간접 소통이 있다. 직접 소통은 미시 해석공동체의 구성원과 직접 대면을 한 소통이다. 학교, 가정, 직장, 모임, 학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다. 학생의 경우는 교실, 가정, 학원 등에서 이루어진다. 간접 소통은 대면이 없는 소통이다. 거시 공동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이다.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이나 해석 전략 등에 대한 소통이다. 읽기 주체가 소통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잘 이루어질 때 共주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관념 공유자는 읽기 주체가 타 읽기 주체의 관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역할을 한다. 관념을 공동으로 가진다는 것은 관념 구성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한다. 타 읽기 주체가 관념을 구성할 때 읽기 주체의 생각 줄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은 타 읽기 주체의 생각 줄기들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 해석공동체의 읽기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관념을 공유하게 된다. 읽기 주체들의 관념 구성 참여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차 관념이 구성되고 난 후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다. 관념의 소통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관념의 공유는 일차 관념이 형성되고 난 후부터이다. 읽기 주체는 관념을 타 읽기 주체에게 제공하고, 타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에 참여하

여 관념 공유자가 되어 활동한다. 관념의 적극적 소통은 읽기 주체를 관념의 공유자로 만든다.

관념 연대자는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 역할을 한다. 해석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알고,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관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관은 읽기 주체 고유의 관념이 아니다. 여러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생각 줄기를 엮어서 구성한 관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는다. 그래서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관념의 완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관념에 대하여 연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읽기 주체의 관념에 대한 연대 책임감은 해석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념의 타당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관념 대표자는 관념의 내용이나 특성을 외부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읽기 주체만이 구성한 관념을 외부로 표현해 낼 수 있다. 읽기 주체는 관념을 타 읽기 주체에게 제시할 때, 관념과 일체가 된다. 즉, 주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자신이 구성한 관념의 대표자 역할로서 하는 활동은 타 읽기 주체에게 관념을 제시하고, 옹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읽기 주체는 관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대표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관념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관념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읽기 주체도 존재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읽기 주체가 관념을 대표할 때, 관념이 읽기 주체의 특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는 관념에 대하여 신념이 바탕이 된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해야 한다. 그래야 공주관 구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공주관이 성립한다.

읽기 주체는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공주관을 구성한다. 읽기 교육에서는 이들 역할에 대한 인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를 훌륭한 독자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기에 그렇다. 학습자들이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의 다면성을 알게 되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주어진 역할에 한정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관념 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읽기

에서 타당한 관념 구성은 다양한 읽기 역할을 바탕으로 한 공유관의 구성에서 비롯된다. 읽기 주체의 역할의 다면성에 대한 인식이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 주체의 역할의 다면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념 소통의 내실화

텍스트 이해는 읽기 주체가 관념을 소통할 때 일어난다. 읽기 주체가 고립적으로 내밀한 관념을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관념이라 할 수 없다. 타당성 있는 관념 구성은 읽기 주체가 타 주체와 소통을 통해 관념을 구성할 때 일어난다. 다른 읽기 주체들과 관념을 공유하고 연대할 때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관념의 공유와 연대는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관념 소통은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을 인식하여 인정할 때 일어난다. 읽기 주체들이 타 주체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거나, 타 읽기 주체가 인정할 수 없는 관념을 구성하면 소통할 수 없다. 읽기 교과서의 활동을 보면 소통할 수 없는 활동을 강조한다.

〈4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 첫째 마당

학습 목표: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읽기 제재: 유관순

[활동1]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며 ‘유관순’을 읽어 봅시다.

[활동2]  ‘유관순’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활동3]  ‘유관순’을 다시 읽고, 중요한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정리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활동4]  유관순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였던 적이 있으면 말하여 봅시다.

이 차시 활동은 적용 학습이다. 전략을 적용하여 익힌 후 구성된 관

념의 소통을 의도한다. 차시 활동 전체의 내용을 보면, [활동1]은 배경 지식 활성화 및 제재 읽기 활동이고, [활동2]는 제재 내용 파악 활동이다. [활동3]은 목표 관련 활동이고, [활동4]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적용 활동이다. 이 차시 활동 전개를 볼 때, 타 읽기 주체와의 소통을 위한 활동은 [활동4]이다. 이 [활동4]는 주로 ‘~을 말하여 봅시다.’,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 받아봅시다.’로 되어 있다. 이들 활동 지시문은 관념 소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말해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관념을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지시문 앞뒤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활동 4]에서는 앞의 활동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관념 소통 활동을 할 수 없다. 타 읽기 주체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 서로의 관념을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하라는 지시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한 것을 말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兪주관은 이러한 읽기 주체의 일방적 관념 제시로는 구성할 수 없다.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진지한 이야기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 읽기 주체들이 구성한 관념을 제시하고, 제시된 관념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대안을 내어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지 읽기 주체가 말할 차례니까 말을 하라는 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다.

읽기 주체의 관념 소통은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읽기 주체들은 서로 주관을 가지고 있다. 해석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은 읽기 주체의 관념은 개별 관념의 특성을 띤다. 개별 관념은 다른 독자와 구분되는 관념이다. 읽기 주체들이 개별 관념을 고집하게 되면 관념 소통은 일어날 수 없다. 서로의 차이점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해석공동체를 전제한 읽기 주체의 해석 관념은 공동 관념을 기반으로 공유 관념과 개별 관념을 가진다. 읽기 주체들의 관념 소통은 해석 주체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개별 관념을 조정하여 공유 관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들이 논의의 기초인 공동 관념이 없으면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관여하기가 어렵다. 공동 관념이 주어지면 읽기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을 공동 관념에 비추어 따져볼 수 있다. 이런 따짐을 통하여

읽기 주체들은 공유 관념을 확장하게 된다.

관념 소통은 관념 인정과 관념 변화를 요구한다. 관념 인정은 서로의 관념에 대한 이해이고 존중이다.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소통의 기반이 된다. 독자 중심 읽기 교육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의 관념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을 인정하면 그 때부터 관념 소통이 일어난다. 서로의 관념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념 소통은 읽기 주체의 관념의 변화를 요구한다. 읽기 주체는 타 주체의 관념으로 자신의 관념을 변화시킨다. 관념 소통의 목적이 관념의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는 소통으로 관념을 정교화하고 확장함으로써 共관념을 구성하고, 共관념은 타 읽기 주체의 관념과 공유된 부분을 갖게 된다.

관념 소통은 읽기 주체들의 관념 점검과 관념 엮기이다. 관념 점검은 관념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들은 해석공동체가 공유한 공동 관념을 바탕으로 관념을 점검한다. 읽기 주체들은 공동 관념에 비추어 서로의 관념을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념을 수정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 점검 과정에서 관념 엮기가 일어난다. 관념 엮기는 읽기 주체의 관념들이 얹히고 연결됨이다. 소통을 통한 관념의 점검은 관념 엮기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서로의 관념이 얹히면서 연결되지 않으면 소통은 의미가 없다. 읽기 주체의 관념은 소통 과정에 놓이면 여러 갈래의 생각들과 연결되고 발전한다. 개별 관념들이 연결점을 찾아 공유 관념으로 바뀌면서 관념 엮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共주관은 공동 관념을 기초로 개별 관념을 엮어 공유 관념을 구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 주체의 개별적 주관보다는 해석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共주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共주관은 타 읽기 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관념으로 구성된다. 소통을 통한 관념의 구성이다. 단일 읽기 주체만의 관념(주관)이나 서로 통하는 읽기 주체가 공유한 관념(상호주관)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관념이다.

읽기 주체의 관념에 대하여 타 주체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관념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인 관념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만의 관념(주관)을 구성할 수 있다. 그 관념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관념을 만듦으로써 학습자는 해석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해석공동체 구성은 읽기 교육의 몫이다. 학습자들이 공주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습자를 해석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3) 관념의 합일화

공주관은 관념의 합일(合一)을 필요로 한다. 공주관은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과 읽기 주체들의 개별 관념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여러 생각 줄기가 모여 하나의 관념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생각 줄기들은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읽기 주체는 이들 생각 줄기를 수합하여 하나의 관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 줄기들이 하나의 합일된 관념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공주관은 구성되지 않는다. 공주관 구성을 위한 관념의 합일은 읽기 주체의 몫이다. 타 읽기 주체는 생각 줄기를 제공하고, 격려만 한다. 하나의 체계화된 관념 구성은 읽기 주체가 해야 한다.

읽기 주체가 처음 텍스트를 읽고 구성한 관념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텍스트 내용의 단순 암기인지, 재구조화 내용 파악인지, 정교화한 텍스트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단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취사선택되어 표상되어 있을 뿐이다. 읽기 주체는 이들 정보들을 일관된 내용으로 재정열하고, 재조직하여 특정한 생각을 정리하여 낸다. 이 정리된 생각이 읽기 주체가 구성한 일차적 관념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읽기 첫째마당 2차시 제재 텍스트는 '유관순'이다. 독자는 이 텍스트를 읽고, '유관순'의 출생과 유관순의 업적 및 유관순의 죽음에 대하여 파악한다. 그래서 유관순은 나라를 위하여 열아홉에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하여 나라의 잃음과 일본에 대한 증오, 유관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생긴다. 이를 통하여 유관순

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것이 일차 관념이다³¹⁾.

읽기 주체가 일차적 관념을 타 읽기 주체에게 제시하면 이 관념에 대하여 타 읽기 주체의 다양한 생각 줄기들이 제시된다. 국가의 나약함, 국가 지도자들의 무능, 일본의 침략, 유관순의 용기, 국민의 의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누구나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도 제기된다. 읽기 주체는 이들 생각 줄기들을 수용한다. 이 생각 줄기들은 하나의 통일된 생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주체는 이들 생각을 종합하여 합일된 이차적 관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관순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려울 땐 용감하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튼튼한 나라가 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는 이렇게 관념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관념은 일차적 관념의 내용을 타 주체의 관념과 결합하여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한 이차적 관념이다³²⁾. 이 이차적 관념이 읽기 주체와 결합하여 공유관이 된다.

관념의 합일화는 읽기 주체 관계의 확장이다. 공유관에는 타 읽기 주체의 여러 관념들과 관련되어 있다. 읽기 주체의 자족 관념은 공유관이 될 수 없다. 공유관은 다른 관념과 내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유관 구성에서 읽기 주체들은 자신의 관념을 기반으로 타 읽기 주체의 관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관념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타 읽기 주체의 관념이 읽기 주체의 관념과 상통할 수 있게 조정한다. 읽기 주체는 타 읽기 주체의 관념을 인정하면서 읽기 주체의 관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관념을 주고받기 위한 읽기 주체들의 관계를 확장하게 만든다. 읽기 주체들의 관념에 대한 관계는 상보적이기도 하지

31) 읽기 주체의 일차적 관념 구성을 공유관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에 기초한 관념 구성이다.

32) 이차적 관념 구성도 읽기 주체들이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에 기초하여 구성한다.

만 대립적이기도 하다. 공주관은 소통을 통한 관념이라는 면에서 상보적이지만 읽기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립적이다. 대립과 상보는 관념 소통과 관념 변화의 바탕이다. 읽기 주체들은 관념의 대립적 특성에서 소통을 하고, 상보적 특성에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서로의 대립적 부분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하여 관념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읽기 주체들은 서로의 관념에서 연대의식을 갖는다. 다른 관념과 단절된 관념은 공주관이 아니다.

합일된 공관념은 융합적이다. 공주관은 읽기 주체가 구성한 관념이지만 여러 관념이 응결되어 있다. 해석공동체의 공동 관념과 타 주체와의 공유 관념 및 읽기 주체의 개별 관념이 얹혀있다. 공주관은 어느 특정 관념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관념들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 공주관을 구성하고 있는 관념을 세밀하게 분석하게 되면 그 근본이 되는 생각의 줄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줄기가 공관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수소(H)가 융합하면 헬륨(He)이 된다. 헬륨은 수소의 양성자(원자핵)와 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헬륨은 수소의 분자가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다. 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도 마찬가지이다. 공주관 구성의 바탕이 되는 생각 줄기는 확인할 수 있지만 공주관 속에서는 그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다. 공주관은 하나의 체계화된 관념으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 줄기들은 공주관의 일부로서 존재할 뿐이다.

합일된 공관념은 관념의 변화이다. 관념의 변화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있다. 양적 변화는 정교화와 확장이다. 정교화는 관념이 내적으로 구성 논리 강화되고, 내용이 세밀하게 구성되는 것이다. 확장은 포용력의 확대와 내용의 다양성을 갖는 것이다. 질적 변화는 교체와 혁신이다. 교체는 기존 관념을 다른 관념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혁신은 기존 관념을 새로운 관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관념의 양적 변화는 다른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질적 변화는 관념을 구성하는 기본 전제를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중심 읽기에서 독자 중심 읽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근본적인 관념은 共주관의 바탕이 되는 공동 관념을 대체함으로써 일어난다. 양적 변화는 공동체 내에서의 읽기 주체의 진보라면, 질적 변화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진보이다.

共관념은 포용성과 배타성을 갖는다. 포용성은 끌어안음이다. 반면 배타성은 밀어냄이다. 읽기 주체는 공동 관념에 기초한 共주관일 경우는 끌어안는다. 그러나 공동 관념이 다른 경우에는 배타성을 갖는다. 배타성이 적대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계의 대상이 된다. 포용성과 배타성은 관념에 대한 연대의식에서 비롯된다. 읽기 주체들이 서로의 관념 구성에 대하여 기여함으로써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포용성이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배타성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관념을 구성한 읽기 주체는 독자를 중심으로 관념을 가진 읽기 주체를 밀어낸다. 관념의 구성 방식(해석전략)과 관념의 구성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관념의 합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되는 특성이 포용성과 배타성이다.

읽기 주체의 共주관 구성을 위한 교육은 共관념의 합일적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합일의 전제는 다수이다. 다수는 차이성과 구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관념의 합일은 다수의 관념이 지닌 차이성과 구별성을 반영한다. 그래야 소통을 통한 관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共관념 구성을 위한 관념의 합일은 다수의 관념 모두를 하나의 '단일 관념'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읽기 주체는 다수의 관념에서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자신의 共관념을 구성한다. 共관념은 읽기 주체들이 협상을 통하여 단일의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다. 읽기 주체들은 각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共관념을 구성해 내는 것이다. 읽기 주체만의 독창적 관념이나 집단이 합의한 단일 관념은 共관념이 아니다. 독창적 관념이나 단일 관념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나, 서로 차이나는 부분이 없다. 읽기 교육에서는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읽기 주체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서, 서로 차이나는 관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共주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IV. 결론

읽기 교육은 공주관을 구성하도록 읽기 주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읽기 주체는 공주관 구성을 통하여 다른 읽기 주체와 소통하고, 관념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념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읽기 주체 간에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석공동체가 되어 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의 질을 높이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읽기 주체가 타당성을 확보하는 읽기는 다른 어떤 읽기 교육보다 의미가 있다. 지금의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관념에 대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읽기 교육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학습자들이 공관념을 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관념 구성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공관념의 구성 방식은 공동 관념을 기반으로 공유 관념과 개별 관념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읽기 교육에서는 개별 관념의 구성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 간에 관념 소통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념 소통의 부재는 자족 관념을 구성하게 하고, 이타 관념을 구성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공주관의 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읽기 교육에서 공주관의 구성은 읽기 주체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관념 소통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관념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공주관 구성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공관념의 합일화를 강화해야 한다. 흩어진 생각은 관념이 될 수 없다. 소통을 통하여 교환된 여러 생각 줄기들은 반드시 읽기 주체에 의하여 하나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공주관 구성 교육은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방법의 교육이다. 공주관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안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06. 10. 13. 투고되었으며, 2006. 11.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6. 11.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구인환 외(2004), 『문학교육론』, 삼지원.
- 김국태(2006), “읽기 수업의 교수적 비제설정 양상 연구”, 교원대박사논문.
- 김도남(2002), “텍스트 이해 교육의 접근 관점 고찰”,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제15집.
- 김도남(2005), “리얼의 욕망이론과 읽기 교육의 문제”,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제24집.
- 김도남(2005),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 김도남(2006a),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제25집.
- 김도남(2006b), “해석공동체의 개념 탐구”,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제26집.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 박수자(2001), 『읽기 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현재 외(2003),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 신현재 외(2005),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 유영대(1989), 『심청전 연구』, 문학아카데미.
- 정동화 외(1989), 『국어과교육론』, 선일문화사.
- 최운식(1982), 『심청전 연구』, 집문당.
- 한철우 외(2001), 『과정중심 독서 지도』, 교학사.
- Fish, S.(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cMahon, S. I. & Raphael, T. E. (ed)(1997), *The Book Club connection*, NY: Teachers college press.

<초록>

공동관 구성 읽기 교육 방향 탐색

김도남

공동관은 해석공동체 내에서 읽기 주체가 구성한 주관이다. 공동관은 읽기 주체와 공동관의 결합이다. 공동관은 해석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관념과 읽기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관념, 그리고 읽기 주체만 지니고 있는 개별관념의 결합체이다. 이 공동관은 해석공동체 내에서 읽기 주체들의 관념소통으로 구성된다. 읽기 주체가 이 공동관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공동관이라 한다.

읽기 주체들은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 줄기를 교환하여 결합시킴으로써 공동관을 구성한다. 공동관은 관념의 질적인 변화를 전제한다. 관념의 질적 변화는 관념 내용의 충실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관념의 질적 변화는 공동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해석공동체 참여 기제, 읽기 주체 간 소통기제, 읽기 주체의 공동관 구성 기제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관은 관념의 소통과 관념의 공유 및 관념의 타당성을 추구한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에서는 이 공동관 구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주관 구성 중심의 읽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주관 중심의 읽기 교육은 읽기 주체의 역할을 제한하고, 관념의 소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동관 구성 교육에서는 읽기 주체의 다면화와 관념의 소통 및 공동관의 합일화를 필요로 한다.

앞으로의 읽기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공동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관 구성의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해석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읽기 주체의 공동관 구성이 공동관을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의 읽기 교육에서는 공동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어】 공동관, 읽기 교육, 읽기 주체, 해석공동체, 공동관념, 읽기 전략, 관념 소통

<Abstract>

**An Approach of Reading Instruction for Construction of
Co-subjectivity**

Kim, Do-nam

We know that the reading instruction is teaching the reading strategies. This statement is right. We have been teach the reading strategy to student for the improvement of reading ability. Besides we must teach the method of meaning-construction to student. Because of the ultimate aim of reading is to construct the idea about the text. So, the reading teacher should have instruct the idea constructing methods to student.

This paper is intended to argue about the idea construction of reader in reading interpretive communities. The reader construct a co-idea in interpretive communities with other reader by communicating the mutual understanding of idea. The co-idea is a compound idea which is combined the stem of thoughts of the several members of interpretive communities. The reading subject forms the co-subjectivity in consequence of uniting co-idea. The co-subjectivity making is essential to the reader in reading interpretive communities

The reading education for to make reading interpretive communities be should teaches the student to make the co-subjectivity. The way of making the co-subjectivity is communicating of the reading subject to gain mutual understanding of idea. In the reading instruction help the reader to have ownership about the co-idea by take part in the meaning making activity of others with communication.

[Key words] co-subjectivity, reading instruction, the reading subject, interpretive communities, co-idea, reading strategy, mutual understanding of idea